

민주당, 野 개헌 압박 “당론 정해 논의하자”

우원식 “정부 개헌 발의 않도록 여야가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야당을 향해 대통령 발의 전 조속히 개헌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2월말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후속대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리자”고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를 끝내 정략적 사고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을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2월내 개헌안을 만들어서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특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개헌·정개특위는 전날 위원 구성을 완료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로드맵 발표에 대해 바른정당이 “국회를 건너 뛴 버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고 밝힌데 대해 “지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시간 닳하고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개헌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자중수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각 당이 당론을 정해 개헌 협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은 시간이 없거나 좌파사회주의 색깔론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헌안을 충분히 숙지해 각 당의 당론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놓고 개헌특위, 여야 지도부 협의에 본격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당론 수립 절차를 가졌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 전문 개정,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에서는 대부분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중임제를 다수가 선호하는 가운데, 일부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로 원내지도부가 나서 개헌·정개특위 위원단 논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최대한 당론을 도출한 뒤,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구분해 당

론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에 의지가 있다면 각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리돼야 개헌·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를 안 한다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회에서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통령이 3월 중순을 지나면 서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개헌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것은 국회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국회의 개헌 발의권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수석은 권력구조를 제외한 개헌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다수의) 동의가 안 된 개헌안을 단지는 것은 한 뼘 일을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 3분의 2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발의)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유승민 “이학재 의원의 결단에 감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유승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함께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이학재 의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중국집서 난 짜장면’ 외치는 악덕사장 연상돼”

김성태 “형식적 국회 개헌 논의 민주당에 청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인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 대해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비우겨 시켜먹어라 근데 난 짜장면’을 외치는 악덕사장님이 연상된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문 대통령은 간과해선 안 된다”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줄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월간 논의의 배경을 시작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이 어제 형식적인 국회 개헌 논의를 이미 민주당에 청부했다”며 “문재인 개헌으로 가져가겠다는 이 술책에 대해 모든 정치적 역량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별도 국민투표를 하는데 국민 세금 1200억을 걸어야 한다”며 “개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개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김사 출신 4선 김재경 의원을 간사에 주광덕 의원을 대변인에 정태욱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위원에는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정종섭·김성태(비례)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사개특위 간사에 장재원 의원을 대변인에 강효상 의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위원으로는 여상규·열동열·이은재·윤상직·곽상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장병완 “광주시장 나갈 생각 없다” 불출마 선언

호남 중진으로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돼온 국민의당 장병완(65·광주 동남갑)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11일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광주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의원은 “4년 전, 민선6기 광주시장 선거 당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에서 출마 예정자인 이용섭 당시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뺀 5명이 찾아와서 웅림 할테니 시장후보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무릎 입성이 가능했음에도 거부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장 의원은 “예산 전문가로 기획과 소통까지 3박자를 갖춘 점과 풍부한 행·의정 노하우 등으로 그동안 4선의 김동철 원내대표와 3선의 박주선 의원과 함께 출마예정자로 분류돼 왔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분당을 둘러싼 당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출마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는다. 국회 노론자위 상임위원 신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비핵화 전제 않는 회담, 北 정치쇼에 놀아나는 것”

“북핵 완성 시간별기 부회뇌동 한다면 역사죄인 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한병도(오른쪽부터) 정무수석, 조영균 통일부 장관에게 남북회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남북 회담은 북핵을 완성할 시간만 벌여주는 북한의 정치쇼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북의 위장 평화공세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에 퍼준 수십억 달러가 북핵 개발 자금으로 전용돼 돌아왔는데 그 정권을 이어 받은 이 정권이 북핵 완성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부화뇌동 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비핵화에 주력하고 회담의 주제를 비핵화에 중점을 두시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